

《上博楚簡》《周易》과 帛書本 《周易》의 ‘訟’卦 문자 비교 연구*

崔 南 圭**

<目次>

I. 序論	1. 通假字
II. 《上博楚簡》과 《帛書》의 ‘訟’ 卦 문자 비교	2. 판본이 다른 경우
	III. 結論

I. 序論

《上博楚簡》의 ‘訟’卦는 第4, 5, 6簡에 해당된다.¹⁾ 제4간은 윗부분이 23.2cm이고 아랫부분이 20.6cm로, 이 두 죽간을 짝 맞추기 한 것이다. 문자는 모두 41자이며, 卦畫와 卦名 아래 부호 ‘■’가 있다. 제5간의 길이는 43cm이고, 문자는 모두 43자이다. 제6간의 길이는 43.3cm이며, 문자는 모두 4자가 있다. 제6간의 ‘上九’ 爻辭 마지막 부분에 ‘■’ 부호가 있다.

‘訟’은 卦名이고, 《周易》의 여섯 번째 괘에 해당되며, 아래는 ‘坎(☵)’ 卦이고 위는 ‘乾(☰)’卦이다.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2”

** 全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1) 《上博楚簡》의 《上博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上海古籍出版社)를 가리키고, 帛書 《周易》은 长沙市 馬王堆 3號墓 中的 ‘六十四卦’를 가리킨다. 《上博博物館藏戰國楚竹書》는 《上博楚簡》으로 간칭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楚竹書로 통칭하기로 한다.

遯(歸)肤(逋), 兀(其)邑人晶(三) [4] 四戶, 亡(无)禘(省). 六晶(三): 飮(食)舊惠(德), 貞厲(厲), 冬(終)吉; 或從王事, 亡(无)成. 九四: 不克訟, 復(復)即命愈(渝), 安貞吉. 九五: 訟, 元吉. 上九: 或賜緇(鞶)帶(帶), 冬(終) [5] 朝晶(三)襄(表)之 [6].

【帛書本】

訟: 有復(孚), 洫(室)寧(惕), 克(中)吉, 冬(終)兇.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初六, 不永所事, 少(小)有言, 冬(終)吉. 九二, 不克訟, 歸而逋. 其邑人三百戶, 无省(眚). 六三: 食舊德, 貞厲, 或從王事, 无成. 九四: 不克訟, 復即命愈(愈), 安貞吉. 九五: 訟, 元吉. 尚(上)九: 或賜般(鞶)帶, 終朝三褫(褫)之.

【現行本】

訟: 有孚窒惕, 中吉,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初六, 不永所事, 小有言, 終吉. 九二, 不克訟, 歸而逋. 其邑人三百戶, 无眚. 六三: 食舊德, 貞厲, 終吉. 或從王事, 无成. 九四: 不克訟, 復即命渝, 安貞吉. 九五: 訟, 元吉. 上九: 或錫之鞶帶. 終朝三褫之.

《上博楚簡·周易》의 釋文은 濮茅左의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周易》(2003)과 《楚竹書<周易>研究》(2006)上卷의 <第二章 楚竹書<周易>原文考釋>(68쪽-188쪽)을 참고하기로 한다. 《楚竹書<周易>研究》(2006)은 《上博楚簡·周易》(2003)을 보충 추가한 것이다.

《上博楚簡(三)·周易》의 주석부분 중에는 <附錄一: 竹書<周易>·帛書<周易>·今本<周易>文字比較表>에서 帛書本 《馬王堆漢墓文物》(1992年)과 馬王堆漢墓帛書整理 팀의 <馬王堆帛書<六十四卦>釋文>을 참고하고, 現행本 《十三經注疏》(中華書局, 1980)를 참고하여 《上博楚簡》의 三十四卦를 비교하고 있다. 본 논문의 문자 비교는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백서본’은 馬王堆漢墓帛書整理 팀의 <馬王堆帛書<六十四卦>釋文>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廖明春이 정리한 <馬王堆帛書周易經傳釋文>을 참고하기로 한다. ‘現행본’은 《十三經注疏》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李學勤 主編의 《十三經注疏·周易正義》(北京大學出版社, 1999)를 참고하기로 한다. 楚竹書 중에 보이지 않는 문자는 부호 ‘□’를 사용하며, 異體字 비교를 위하여 戰國·秦漢 시기의 각종 출토문헌자료와 《馬王堆簡帛文字編》(陳松長 編著) 등의 문자를 참고하기로 한다. 《帛書》《周易》의 문자 중 《馬王堆漢墓文物》(1992)의 원 도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李正光의 《馬王堆漢墓帛書竹簡》(1988)의 臨書를 참고하기로 한다.³⁾

II. 《上博楚簡》과 《帛書》의 ‘訟’卦 문자 비교

‘訟’자를 《上博楚簡》의 《周易》은 ‘訟’³⁾으로, 《帛書》는 ‘卦名’은 보이지 않지만 “不克訟” 중의 ‘訟’자를 ‘訟’⁴⁾으로 쓴다.

金文은 ‘訟’자를 ‘訟’·‘訟’·‘訟’으로 쓴다.⁴⁾ 《說文解字》는 ‘訟(訟)’자에 대하여 “訟, 爭也. 從言, 公聲. 訟, 古文訟.(‘訟’은 ‘다투다’의 의미이다. 籀文 ‘言’과 ‘公’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訟’자의 古文은 ‘訟’으로 쓴다)”라고 하였고, 朱駿聲은 “以手曰爭, 以言曰訟.(손으로 다투는 것을 ‘爭’이라 하고, 언쟁하는 것을 ‘訟’이라 한다)”이라 하였다. ‘訟’은 ‘諍’의 뜻이다.⁵⁾

아래에서는 편폭 관계상, 《上博楚簡》과 《帛書》의 《周易》‘訟卦’ 중 통가자와 판본이 달라 상호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이체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⁶⁾

3) ‘訟’卦에 관한 주요 논문은 何琳儀·程燕·房振三(2006), 廖名春(2004), 李零(2006), 季旭昇(2004), 楊澤生(2004), 濮茅左(2006), 陳惠玲(2005), 陳仁仁(2010)을 참고하기로 한다. 자세한 출처는 주요참고문헌 참고.

4) 《金文編》, ‘0361 訟’ 147 쪽 참고.

5) 본 논문에서는 고문자학 중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료 및 古典籍의 쪽수는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예를 들어, 《說文解字》·《說文解字注》·《爾雅》나 혹은 《書經》·《詩經》 등.

6) 《上博楚簡》과 帛書本 《周易》의 異體字, 예를 들어 ‘又-有’·‘晶-三’·‘孚-復’·‘冬-終’·‘亡-無’ 등은 상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며, 이외에도 필획의 많고 적음 혹은 곡선과 직선의 변화 등등의

1. 通假字

1) 편방이 모두 다른 경우

① ‘ (愷)’-‘ (澗)’

《上博楚簡》은 ‘’로 쓰고 《帛書》는 ‘ (澗)’로 쓰며, 현행본은 ‘窒’로 쓴다. 《上博楚簡》의 정리본은 ‘’자를 ‘愷’자로 隸定하고 ‘窒’로 해석하였다.⁷⁾ ‘’자는 ‘愷’자나 ‘涉’자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⁸⁾ ‘寔’자를 갑골문은 ‘·’로⁹⁾, 금문은 ‘’(《書·大誥》)·‘’·‘’(《楚篇》)로 쓴다.¹⁰⁾ 갑골문과 금문의 형태는 ‘’자 중의 편방 ‘寔’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寔’자의 《廣韻》의 음은 ‘陟利切’·‘都計切’이다. ‘寔’자는 ‘蒂’자와 음이 같고 의미도 같다.¹¹⁾ ‘寔’자의 고음은 ‘知’ 혹은 ‘端’母이고, 韻母는 ‘脂’部이다.¹²⁾

‘ (寔)’자에 대하여 《說文解字》는 “礙不行也.(방해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라 하고, 《廣韻》은 “寔, 頓也.(‘寔’는 ‘넘어지다(頓)’의 의미)”라 했다. 《睡虎地秦簡》은 ‘’로 쓴다.¹³⁾

‘’자에 대하여 《說文解字》는 “十里爲成. 成間廣八尺, 深八尺謂之澗. 從水血聲.(況逼切). (十里를 한 成이라 하고, 成과 成 사이에 넓이가 八尺이

필획의 차이에 대해서는 편쪽 관계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의 이 체자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上博楚簡》과 帛書本《周易》이 같은 내용이나 다르게 쓰는 문자를 가르킨다.

- 7) 《楚竹書周易研究》, 77 쪽 참고.
- 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 11쪽 참고.
- 9) 《甲骨文編》, 0536쪽 참고.
- 10) 《金文編》, ‘0649 ’, 272 쪽 참고.
- 11) 《金文常用字典》, 453 쪽 참고.
- 12) 上古音과 中古音 등은 ‘臺灣大學中國文學系’과 ‘中央研究院資訊科學研究所’가 공동 개발한 인터넷의 “漢字古今音資料庫”(http://xiaoxue.iis.sinica.edu.tw/cr/#)를 참고하기로 한다.
- 13) 《秦漢魏晉篆隸字形表》, 255쪽 참고.

고 깊이가 八尺인 것을 해자(溝洫)라 한다. 편방 ‘水’와 ‘血’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했다.

古典的에서 ‘洫’자는 ‘恤’과 ‘卹’의 통가자로 쓰이고, 기본 음성부분인 ‘血’자의 고음은 ‘曉母’質部이며, ‘陟栗切’인 ‘窒’자는 ‘端母’質部로 韻部가 같다. ‘窒’자에 대하여 《說文解字》는 “塞也. 從穴至聲.(內室의 의미. ‘穴’과 ‘至’로 이루어진 회의자)”라 하고, 《集韻》은 “塞穴.(구멍이 막히다)”라 했다. ‘寔’와 ‘窒’자는 古音이 비슷하고, 帛書의 ‘洫’과는 ‘曉母’質部로 聲母가 같고 韻이 서로 통한다.

《周易》중 ‘懼’·‘洫’·‘窒’자에 대한 해석은 매우 분분하다. 王弼은 “窒. 謂窒塞也. 能惕然後可以獲中吉.(窒은 막힘이다. 두려워한 연후에 중간의 길함을 얻을 수 있다)”라 하고,¹⁴⁾ 《周易正義》는 “被物止塞而能惕懼.(물건에 막혀 두려워하다)”라 했다. 《豳風·七月》“穹窒薰鼠, 塞向瑾戶.(집안의 구멍을 막고 쥐를 불로 그을려 쫓으며 북향 창을 막고 문을 진흙으로 바르네.)”에 대하여 《毛傳》은 “窒, 塞也.(‘窒’은 ‘막다’의 의미)”라 하고, 孔穎達《疏》는 “言窮盡塞其窟穴也.(은 힘을 다하여 그 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이다)”라 했다. 《周易·損》“君子以懲忿窒慾.(군자는 이를 본받아 성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라 했다.

現行本 ‘晉’卦의 “失得勿恤, 往吉无不利.(잃고 얻음을 근심하지 말지니 감에 길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중의 ‘恤’자를 孔穎達《疏》는 “失之與得, 不須憂恤.(잃으면 얻는 것이니 반드시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 했다. 본 ‘訟’卦 중의 ‘洫’자는 혹은 ‘恤’의 가차자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¹⁵⁾ 《爾雅·釋詁》는 “恤, 憂也.(‘恤’은 ‘근심하다’의 뜻)”이라 했다. 따라서 ‘恤’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본은 ‘窒惕’ 중의 ‘惕(두려워할 적, ti)’자 역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洫’자를 ‘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寔’의 “礙不行也.(방해가 되어 앞

14) 《周易王弼注》, 77쪽.

15) 張立文, 《帛書周易注釋》, 34쪽 참고.

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와도 일치한다.

② ‘𡗗(意)’-‘𡗗(寧)’

現行本 ‘揚’자를 《上博楚簡》은 ‘𡗗(意)’으로 쓰고, 《帛書》는 ‘𡗗(寧)’자로 쓴다. 《上博楚簡》 정리본은 ‘心’과 ‘甞’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고, 고문자 중에서 ‘商’자와 ‘甞’자의 형태는 같으며, ‘甞’의 음성은 ‘端’母 ‘錫’部이고 ‘揚’은 ‘透’母 ‘錫’部로 聲母는 비슷하고 韻部가 같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 했다.¹⁶⁾

《說文解字》는 ‘𡗗(甞)’자에 대하여 “語時不甞也. 从口帝聲. 一曰甞, 謔也. 讀若鞮.(施智切).(虛詞 ‘不甞’는 ‘단지’라는 의미이다. ‘口’와 ‘帝’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바른말하다(謔)’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鞮(가죽신 제; dī, tí)’자와 음이 같다.”라고, ‘𡗗(揚)’자에 대하여 “敬也. 從心易聲. 𡗗或从狄.(他歷切).(‘공경하다’의 의미. ‘心’과 ‘易’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揚’자는 혹은 편방 ‘狄’을 써서 ‘𡗗(愁, 칙, tí)’으로 쓰기도 한다)”라 했다.

현행본 《周易》의 “有孚窒惕”의 구절을 帛書本은 “有復沍寧”으로 쓴다. 《帛書》는 《周易》 중 “不寧方來”(‘比’卦)·“有它不寧”(‘中復’卦)의 ‘寧’자를 각각 ‘寧’·‘寧’으로, 《老子甲》의 “地得以寧”의 ‘寧’자를 ‘寧’으로 《春秋事語》의 “寧召子不聽” 중의 ‘寧’자를 ‘寧’으로 쓴다.¹⁷⁾ 이외에도 《秦漢魏晉篆隸字形表》는 《睡虎地秦簡》의 ‘寧’, 《帛書》의 ‘寧’(《老子甲》)·‘寧’(《春秋事語》)·‘寧’(《老子乙》)과 ‘寧’(《老子乙》前)의 예를 들고 있다.¹⁸⁾ 이들의 자형 중 帛書本 ‘𡗗’은 ‘寧’자와 같다.

《說文解字》는 ‘寧(寧)’자와 ‘寧’자를 구별하여 “寧, 願詞也. 從宀甞聲.(안녕을 바라는 언사. 자건 ‘宀’와 ‘甞’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寧, 安

16) 《楚竹書周易研究》, 78쪽.

17) 《馬王堆簡帛文字編》, 194쪽 참고.

18) 《秦漢魏晉篆隸字形表》, 311쪽.

也。从宀，心在皿上。人之飲食器，所以安人。(‘편안하다’의 의미. 편방 ‘宀’과 마음(心)이 ‘皿’ 위에 있는 편방 이루어진 자. 사람이 사용하는 그릇이며, 이를 사용하면 사람이 편안하게 된다는 뜻)이라 했다. 甲骨文은 ‘宀’·‘心’으로 쓰고, 금문은 ‘寧’·‘寧’·‘寧’ 등으로 쓴다. ‘寧’·‘寧’은 사실상 같은 자이다.¹⁹⁾

楚竹書에서 ‘寧’자는 편방 ‘宀’을 써서 ‘寧’(《包山楚簡》)·‘寧’(《上博楚簡·紉衣》)·‘寧’(《九店楚簡》)으로 쓴다.²⁰⁾

鄧球柏은 《帛書周易校釋》에서 ‘寧’자와 ‘惕’자는 음이 ‘旁紐’와 ‘對轉’ 관계라고 설명하고, ‘涸(못도랑 혁, xù)’자는 물이 막혀 흐르지 않음을 말하고, ‘寧’은 ‘安靜’이란 의미로 동정없이 조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 했다.²¹⁾ 의미상으로 ‘涸寧’은 ‘물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는 곧 ‘막혀 곤란함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窒惕’은 곧 ‘恤惕’와 같다.

《國語·晉語》“聞子與蘇未寧。(듣자하니 그대는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하다)”에 대하여 韋昭는 “寧, 息也.(‘寧’은 ‘마치고 쉬다’의 뜻)”이라 했다.

③ ‘𠂔(肤)’-‘逋(逋)’

《上博楚簡》은 ‘肤’로 쓰고, 《帛書》는 ‘逋’로 쓴다. ‘逋’자의 上古音을 周法高는 ‘幫’母‘魚’部인 ‘pway’, ‘肤’자는 ‘非’母‘魚’部인 ‘pjway’로 擬音하였다.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통용된다. 《上博楚簡》은 “逋肤”로 쓰고, 《帛書》와 現행本은 “歸而逋”로 쓴다. 《上博楚簡》에는 ‘而’자가 없다.

《帛書》중 《五十二病方》은 ‘逋’자를 ‘逋’로 쓰고,²²⁾ 《睡虎地秦簡》은 ‘逋’로 쓴다.²³⁾

19)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504쪽.

20) 《楚系簡帛文字編》, 682쪽 참고.

21)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94쪽 참고.

22) 《馬王堆簡帛文字編》, 65쪽.

《說文解字》는 ‘逋(逋)’자에 대하여 “亡也. 从辵甫聲. 籀文逋, 从捕. (‘逋’는 ‘도망하다’의 의미. 편방 ‘辵’와 ‘甫’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籀文은 편방 ‘捕’인 ‘逋’로 쓴다)”라고 설명하고, 《增修互注禮部韻略》은 “逋, 逃也, 欠也. 顏師古曰: 欠負官物亡匿不還者, 皆謂之逋, 故又訓負.(‘逋’은 ‘도망하다’·‘모자라다’의 의미이다. 顏師古는 ‘관의 물건을 빌려갔거나, 손실시켜도 되돌려 놓지 않는 것을 ‘逋(체납하고 도망가다)’라고 한다. 그런 고로 ‘負(빚지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 했다. 王弼注는 “歸竄其邑, 乃可以免災.(돌아가 숨는다면 재앙을 면하다)”라 하고, 《象傳》은 “歸而逋竄也.(돌아가 도망하여 숨다)”라 했다.

④ ‘上(上)’-‘尙(尙)(尙)’

《上博楚簡》은 ‘上’으로 쓰고, 《帛書》는 ‘尙’으로 쓴다.

《說文解字》은 《書經·多方》의 구절 “爾尙不忌於凶德(바라건대 그대 들은 흉악한 행동을 미워하라)”를 인용하면서 “上不棼于凶德”으로 쓰고, 《呂氏春秋·盡數》“今世上卜筮禱祠, 故疾病愈來.(지금 사람들은 卜筮나 제사 혹은 사당을 숭상하기 때문에 질병이 더 많아진다)”에 대하여 孫鏞鳴의 《補正》은 “上, 尙也.(‘上’은 ‘尙’의 의미다)”라 했다.²⁴⁾

《帛書》는 ‘尙’자를 ‘𠄎’·‘尙’·‘尙’ 등으로 쓰고,²⁵⁾ ‘上’은 ‘上’·‘上’·‘上’·‘上’·‘上’으로 쓴다.²⁶⁾ ‘上’과 ‘尙’은 음이 같기 때문에 서로 통가자로 쓰인다.

⑤ ‘縵(縵)’-‘服(服)(服)’

《上博楚簡》은 ‘縵’으로 쓰고, 《帛書》는 ‘般’으로 쓰고, 현행본은 ‘縵’

23) 《秦漢魏晉篆隸字形表》, 115쪽.

24) 《漢語大字典》, 7쪽 재인용.

25) 《馬王堆簡帛文字編》, 40쪽.

26) 《馬王堆簡帛文字編》, 2쪽.

으로 쓴다.

濮茅左 정리본은 이 자를 ‘緇’으로 隸定하고 자건 ‘糸’·‘田’과 ‘半’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하며, ‘半’은 ‘判’의 생략형이라 하였다. 李守奎의 《文字編》은 이 자는 편방 ‘糸’와 ‘畷(畔)’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鞶’자의 이체자라 하였다.²⁷⁾

‘畔’자를 《郭店楚簡》의 《老子甲》은 ‘畷’(25簡)·‘畷’(30簡)으로, 《上博楚簡》의 《容成氏》는 ‘畔’자를 ‘畷’(45簡)으로 쓰고,²⁸⁾ ‘判’이나 ‘叛’의 의미로 쓰인다. 본 죽간 ‘緇’ 중의 음성부분과 같다.

‘鞶’자에 대하여 《說文解字》는 “鞶, 大帶也. 《易》曰'或錫之鞶帶.'男子帶鞶, 婦人帶絲. 從革般聲.(鞶, 大帶也. 《易》曰'或錫之鞶帶.'男子帶鞶, 婦人帶絲. 從革般聲.(‘鞶’는 ‘큰 혁대’의 의미이다. 《易》은 ‘왕이 혹은 큰 띠를 내려 주었다’라고 하고 있다. 男子는 ‘鞶’을 두르고, 婦人은 ‘絲’를 단다. 이 자는 의미부분이 ‘革’이고 음성부분이 ‘般’이다)”라 하였다.

‘畷(畔)’자에 대하여 《說文解字》는 “田界也. 從田, 半聲.(밭의 경계. 편방 ‘田’과 ‘半’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하고, 朱駿聲《說文通訓定聲》은 “畔, 假借為叛.(‘畔’자는 ‘叛’의 가차자로 쓰인다)”라 했다.

《帛書》 중 ‘般’자는 ‘𠂔’(《十問》)·‘𠂔’(《天文雲氣雜占》)·‘𠂔’(《遣策三》)으로 쓴다.²⁹⁾

⑥ ‘𠂔(襄)’-‘𠂔(摑)’

《上博楚簡》은 ‘𠂔(襄)’로 쓰고, 《帛書》는 ‘摑’로 쓰고, 현행본은 ‘褌(빠앗을 치, chǐ)’로 쓴다.

濮茅左 정리본은 ‘襄’자는 ‘襄’자와 같은 자이며, 《集韻》은 “襄, 同褌.

27)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1-5)文字編》, 136쪽.

28) 《楚系簡帛文字編》, 1148쪽.

29) 《馬王堆簡帛文字編》, 359쪽.

(‘麋’자는 ‘褫’자와 같은 자이다)”라 하고, 《說文解字》는 ‘褫(褫)’자에 대하여 “褫, 古文表, 從麋.(‘褫’자는 ‘表’자의 고문으로 편방은 ‘麋’이다)”라 하였기 때문에, ‘褫’자는 ‘表’자의 고문자라 하였다.³⁰⁾ 그러나 ‘褫’자와는 음성이 차이가 있다.

《經典釋文》은 鄭玄本을 참고하여 ‘褫’자를 ‘挖’자로 쓰고, 《周易集解》 역시 虞翻과 荀爽의 말을 인용하여 ‘挖’로 쓰고 있다. ‘褫’자와 ‘挖’자는 고음이 서로 통한다. ‘褫’자를 周法高的 上古音은 ‘支’部 ‘dieŋ’ 혹은 ‘tʰieŋ’으로, ‘挖’자는 ‘歌’部 ‘tʰa’ 혹은 ‘da’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자에 대하여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음성부분이 ‘鹿’이기 때문에 ‘褫’로 읽어야 하며, ‘褫’자의 음은 ‘褫’와 ‘摠’의 음과 서로 통한다라 하기도 하고(何琳儀 등), ‘鹿’ 음은 ‘衆’과 같기 때문에 ‘剥’의 의미로 쓰인다 하기도 하고(楊澤 등), ‘褫’로 隸定하고, 음이 ‘奚’이나 ‘麋’이기 때문에 ‘褫’와 통한다고도 하고, 또는 ‘麋’의 異體字로 보기도 한다.³¹⁾

鄧球柏은 《帛書周易校釋》에서 《帛書》의 ‘摠’자는 ‘褫’자를 잘못 쓴 것이고,³²⁾ 張立文은 ‘褫’자와 같은 자라 하였다.³³⁾

《上博楚簡》에서 ‘麋’자를 《容成氏》는 𠄎(제 48간)로 쓰고, ‘薦’자의 편방 ‘薦’를 《子羔》는 𠄎(제 12간)로 쓴다. 본 죽간의 ‘𠄎’자의 윗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𠄎’자는 윗부분의 자건이 ‘薦’이고 아랫부분은 ‘衣’로, ‘褫’자로 隸定할 수 있고, 음성부분이 ‘薦’이기 때문에 현행본의 ‘褫(뺨앗을 치, chǐ)’의 음과 서로 통한다.

《說文解字》는 ‘褫’자에 대하여 “奪衣也. 從衣, 麋聲, 讀若池.(‘옷을 탈취하다’의 뜻. 편방 ‘衣’와 ‘麋’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池’의 음과 같다)”라 했다. 高亨은 《周易古經今注》에서 “鄭作挖, 借爲褫. 淮南子人間篇:

30) 《楚竹書周易研究》, 83쪽.

3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 17쪽 참고.

32)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97쪽 참고.

33) 張立文, 《帛書周易注釋》, 39쪽 참고.

‘拖其衣被.’高注:‘拖奪也.’拖俗挖字,亦借挖爲褫.(鄭玄은 ‘褫’자를 ‘挖’자로 쓰는데, ‘褫’의 가차자이다. 《淮南子·人間篇》‘拖其衣被.(의복과 침구를 빼앗다)’에 대하여 高誘는 ‘拖는 탈취하다의 뜻’이라 했다. ‘拖’자의 俗字를 ‘挖’로 쓴다. 그래서 ‘挖’자를 ‘褫’의 가차자로 쓴다)”라 했다.³⁴⁾

2) 일부 편방만 다른 경우

異體字 중 전체 문자 중 일부 편방만이 다른 경우가 있다. 다른 자건이 추가되거나,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자건으로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 이러한 편방 중 일부만이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문자에서 같은 자이거나, 古今字 혹은 俗字인 경우이다.

① ‘𠄎(凶)’-‘𠄎(兇)’

《帛書》와 現행본은 ‘兇’자로 쓰고, 《上博楚簡》은 ‘凶’으로 쓴다. 《說文解字》는 ‘凶’과 ‘兇’자에 대하여 각각 “惡也. 象地穿交陷其中也.(‘험악한 땅’의 의미. 땅에 구멍을 파고 그 곳에 함정을 만든 형상)·“擾恐也. 从儿在凶下. 春秋傳曰, 曹人兇懼.(‘공포에 떨며 지니는 소리’의 뜻. 편방 ‘儿’가 ‘凶’ 아래 있는 회의자이다. 《春秋傳》은 ‘曹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 했다)”라 설명하였다.

《集韻》은 “凶, 惡也. 通作兇.(‘凶’은 ‘흉악하다’의 뜻. 일반적으로 ‘兇’자로 쓴다)”라 하고, 桂馥의 《說文解字義證》은 “兇, 字又作兇.(‘兇’자를 또한 ‘兇’으로 쓴다)”라 하였다. 《左傳·僖公二十八年》“曹人兇懼.(조나라 사람은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에 대하여 杜預는 “兇兇, 恐懼聲.(‘兇兇’은 ‘공포에 질린 소리’의 의미)”라 하고, 《漢書·高帝紀下》는 “天下匈匈, 勞苦數歲.(온 세상이 공포에 떨며 힘들게 보낸 세월이 몇 년이 되었다)”에 대하여 顏師古는 “匈匈, 喧擾之意.(‘匈匈’은 ‘두려워하며 공포에 질리다’의 뜻)”이라, 《國語·晉語》의 “敵入而凶(적이 쳐들어오자 두려워 떨었다)”

34) 《周易古經今注》, 127-128쪽.

에 대하여 韋昭는 “凶, 猶凶凶恐懼, 亦作兇.(‘凶’은 ‘세상이凶凶하여 두려워 떨다’의 의미. 또한 ‘兇’자로도 쓴다)”라 했다. 따라서 ‘凶’·‘兇’·‘匈’은 서로 통가자로 쓰인다.

‘凶’자를 《睡虎地秦簡》은 ‘𠄎’·‘𠄏’·‘𠄐’·‘𠄑’으로 쓴다. 즉 ‘兇’의 형태로 쓴다.³⁵⁾ 《詛楚文》의 ‘𠄒’(《石刻篆文編》)자에 대하여 郭沫若은 “將欲復其眚述: 眚殆兇賊之本字, 從貝與賊字從貝同意, 蓋兇賊之事多因財貨而起, 故從貝. 兇若凶均胸若匈之初文, 凶實胸部之象形. 入後兇演爲兇賊字, 凶演爲吉凶字, 匈爲匈奴之名所專用, 胸字後起, 成爲心胸之專文, 眚字則廢矣.(‘將欲復其眚述’ 구절 중의 ‘眚’자는 ‘兇賊(흉악한 도적)’의 본字이다. 의미부분이 ‘貝’인 것은 ‘賊’자의 의미부분이 ‘貝’인 것과 같다. ‘兇賊(흉악한 도적)’은 일반적으로 재물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부분을 ‘貝’로 쓴다. ‘兇’의 ‘凶’은 ‘匈’이 ‘胸’의 初文인 관계와 같다. ‘凶’자는 실제로 흉부의 象形문자이다. 후에 ‘兇’자는 ‘兇賊’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凶’자는 ‘吉凶’의 의미로 쓰였고, ‘匈’자는 ‘匈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胸’자는 후에 ‘心胸’을 표시하는 의미로 쓰였고, ‘眚’자는 후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⁶⁾

《上博楚簡》는 일반적으로 ‘凶’으로 쓰나, 《武王踐阼》는 ‘𠄓’(第4簡)·‘𠄔’(第14簡)와 같이 ‘兇’으로 쓰기도 하며, 《帛書》《易之義》의 “恒躍則凶” 구절은 ‘凶(凶)’으로 쓰기도 하고,³⁷⁾ 《九店楚簡》은 ‘凶’자를 ‘𠄕’으로 쓴다. 따라서 ‘凶’자와 ‘兇’ 서로 통용됨을 알 수 있다.

② ‘𠄖(遠)’-‘𠄗(歸)’

《上博楚簡》의 ‘遠’자를 現행본과 《帛書》는 ‘歸’로 쓴다.《帛書》에

35) 《睡虎地秦簡文字編》, 113쪽.

36) 《郭沫若全集(9)》, <詛楚文考釋>, 275쪽.

37) 《馬王堆簡帛文字編》, 299쪽.

서는 ‘歸’자를 ‘𡗗’·‘𡗘’·‘𡗙’·‘𡗚’ 등으로 쓴다.³⁸⁾ 편방 ‘止’·‘止’·‘帚’로 이루어진 자이다. ‘帚’는 ‘婦’의 고문자이다. ‘𡗗’와 ‘歸’자는 같은 자이다.

‘歸’자를 갑골문은 ‘𡗗’·‘𡗘’·‘𡗙’로,³⁹⁾ 金文은 ‘𡗗’·‘𡗘’·‘𡗙’·‘𡗚’로 쓴다.⁴⁰⁾ 《說文解字》는 ‘歸’자에 대하여 “女嫁也，從止，從婦省，白聲。婦，籀文省。(‘歸’는 ‘여자가 시집을 가다’의 의미이다. 편방 ‘止’와 ‘婦’의 생략된 형태와 ‘白’聲으로 이루어진 자이다.籀文은 생략하여 ‘歸’로 쓴다)”라고 하고, 李孝定 《甲骨文文字集釋》은 “契文歸作𡗗，則𡗗是從婦不省，以白爲聲。……金文大抵從婦，白聲，與契文同。……或從辵從彳，無單從止者，辵彳止本通用無別。(갑골문은 ‘歸’자를 ‘𡗗’로 쓴다. ‘𡗗’자는 자건 ‘婦’와(‘婦’의 생략형이 아니다) ‘白’로 이루어진 자이다.……금문도 갑골문과 같이 자건 ‘婦’와 ‘白’聲으로 이루어져 있다.……혹은 편방 ‘辵’·‘彳’이나 ‘止’를 추가하여 쓰는데, 고문자에서 자건 ‘辵’·‘彳’·‘止’은 구별없이 통용된다)”라 했다.⁴¹⁾ 郭沫若은 《兩周金文辭大系圖錄考釋》에서 ‘歸’자는 자건 ‘帚’와 ‘𡗗’(追)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하였다.⁴²⁾ 《說文解字》는 ‘追’자에 대하여 “逐也。从辵自聲。(‘쫓아가다’의 의미. 자건 ‘辵’과 ‘自(duì)’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했다. 금문은 ‘追’자를 ‘𡗗’·‘𡗘’·‘𡗙’로 쓴다.⁴³⁾ 금문 ‘歸’자 중 ‘𡗗’은 편방 ‘帚’와 ‘追’로 이루어진 자이다. 따라서 郭沫若의 ‘追(追)’聲이라는 주장이 옳다 하겠다.

《睡虎地秦墓竹簡》은 ‘𡗗’·‘𡗘’로 쓴다. 이 중 ‘𡗗’·‘𡗘’는 편방 ‘止’를 생략한 형태다. 초죽서는 ‘歸’자는 ‘歸’의 형태와 ‘𡗗’의 형태 두 가지로 쓴다. ‘歸’의 형태는 《江陵天星觀卜筮簡》은 ‘𡗗’·‘𡗘’로 《新蔡葛陵楚墓竹

38) 《馬王堆簡帛文字編》，58쪽 참고.

39) 《漢語古文字字形表》，54쪽 참고.

40) 《金文編》，‘0193 歸’，85쪽 참고.

41) 《說文解字今釋》，234쪽 재인용.

42) 《古文字詁林》第二冊，245 쪽 참고.

43) 《金文編》，‘0236 𡗗’，102쪽 참고.

簡》은 ‘’로 쓰며, ‘’의 형태는 ‘’(《包山楚簡》)·‘’(《郭店楚簡》)·‘’(《上博楚簡·孔子詩論》)로 쓴다.⁴⁴⁾ 《正字通》은 “, 同歸. (자는 ‘歸’자와 같은 자이다)”라고 했다.

③ ‘’-‘’(省)(省)

《上博楚簡》의 ‘’자를 현행본은 ‘’으로 쓰고, 《帛書》는 ‘’으로 쓴다. ‘’자는 편방 ‘示’와 ‘’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說文解字》는 ‘’자에 대하여 “目病生翳也.(‘’은 눈에 백태가 생긴 병)”이라 하고, ‘’(生)’자에 대해서는 “進也. 象艸木生出土土(‘나아가다’의 의미. 초목이 땅 위로 솟아나는 모양)”이라 하였다. ‘’자는 형성자이고, ‘生’자의 상형자이다. ‘生’·‘性’과 ‘’자는 음과 의의가 서로 통한다.

‘’자를 갑골문은 ‘’·‘’·‘’으로 쓰고,⁴⁵⁾ 금문은 ‘’·‘’·‘’로 쓴다. 《金文編》는 “從目從中與省爲一字敦煌本尚書說命惟干戈省乎躬今本作省.(이 자는 편방 ‘目’과 ‘中’로 이루어진 자이며, ‘省’와 같은 자이다. 敦煌本은 《尚書·說命》“惟干戈省乎躬(방패와 창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의 ‘省’자를 ‘省’자로 쓴다)라 했다.⁴⁶⁾

《書經·洪範》“王省爲歲(임금은 해를 살펴야 한다)” 구절을 《史記·宋世家》은 ‘’자를 ‘’자로 쓰며, 《公羊·莊二十二年》“春, 王正月, 肆大省(봄, 왕력으로 정월에 큰 제앙을 사면해 주었다)”를, 《左氏穀梁》은 ‘’자를 ‘’자로 쓰며, 《書經·說命》 “惟干戈省乎躬(방패와 창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의 ‘’자를 敦煌本은 ‘’자로 쓴다.

《性情論》의 제1간 “凡人唯又生(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性’을 가지고

44) 《楚系簡帛文字編》, 129쪽.

45) 《漢語古文字字形表》, 135쪽.

46) 《金文編》, ‘0585 省’, 242쪽 참고.

있다)” 구절 중의 𠄎(生)‘자’를 《性自命出》은 𠄎(甞)‘자’로 쓴다. 《性情論》은 ‘性’자를 ‘生’ 혹은 ‘甞’자로 쓴다. 제1간의 첫 구절에서 ‘(生)’이 ‘性’의 의미로 쓰인 이외에 제2·8·10·33간에서는 모두 ‘出生’의 의미로 쓰이고, 제1·2·3·4·5·6·7·18·22·33·34간 등에서는 ‘性’의 의미이며 모두 𠄎(甞)‘으로 쓴다. 《性自命出》에서 ‘性’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𠄎(甞)‘이나 𠄎(제9간)‘으로 쓰고, ‘出生’의 의미는 𠄎(生)‘(제3간)‘으로 쓴다.

따라서 ‘性’·‘生’·‘甞’과 ‘省’은 모두 서로 구별없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甞’자를 《上博楚簡》의 《孔子詩論》은 𠄎(제16간)‘으로, 《紂衣》는 𠄎(제3간)‘으로, 《周易》은 𠄎(제20간)‘으로, 《東大王泊旱》은 𠄎(제14간)‘으로, 《曹沫之陳》은 𠄎(제27간)‘으로 쓴다. 《郭店楚簡》의 《緇衣》는 𠄎(제5간)‘으로, 《唐虞之道》는 𠄎(제11간)‘으로, 《成之聞之》는 𠄎(제11간)‘으로, 《語叢》은 𠄎(二.1)·𠄎(二.10)·𠄎(三.68)‘으로 쓴다.

《廣韻》은 ‘甞’자를 “過也, 災也.(과실 혹은 재난의 의미이다)”라 했다. 王弼注는 ‘甞’자를 災殃인 ‘災’의 의미로 해석하였다.⁴⁷⁾

④ 𠄎(飮)‘-’𠄎(食)(食)‘

현행본과 《帛書》의 ‘食’자를 《上博楚簡》은 𠄎(飮)‘로 쓴다.

《說文解字》는 ‘飮’자에 대하여 “飮, 糧也. 從人食.(‘飮’는 ‘양식을 먹이다’의 의미. 편방 ‘人’과 ‘食’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라 하고, 《說文解字注》는 “按以食食人物. 其字本作食, 俗作飮, 或作飼. 經典無飮.(음식물을 사람에게 먹인다는 뜻이다. 이 자는 원래 ‘食’자로 쓰는데, 俗字는 ‘飮’로 쓰고, 혹은 ‘飼’로 쓴다. 經典에는 ‘飮’자가 없다)”라 했고, 《玉篇》은 “飮,

47) 《周易王弼注》, 81쪽.

食也.(‘飮’는 ‘먹이다’의 의미이다)”라 하였다. ‘飮’는 ‘飼’자와 같은 자이고, 일반적으로 ‘食’자로 쓰기도 한다.

‘飮’자를 甲骨文은 ‘飮’·‘飮’로 쓰고, 금문은 ‘飮’·‘飮’ 등으로 쓴다.⁴⁸⁾

《包山楚簡》은 ‘飮’·‘飮’·‘飮’, 《郭店楚簡》은 ‘飮’·‘飮’ 등으로 쓰며,⁴⁹⁾ 《睡虎地秦簡》은 ‘飮’로 쓴다.⁵⁰⁾ 모두 죽간의 ‘飮’자와 형태와 같다.

《王弼周易注》는 “故得食其舊德而不失也.(고로 옛 덕에 의지해 먹던 대로 잃지 않을 수 있다)”로 이해하고,⁵¹⁾ 高亨은 ‘飮’의 의미로 보고 “食舊德”을 ‘옛 덕행을 훼손하다’로 해석하였다.⁵²⁾ 鄧球柏은 ‘養’의 의미로 해석하였다.⁵³⁾ ‘食’자에 대하여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⑤ ‘惠’(惠) - ‘德’(德)

《上博楚簡》은 ‘惠’으로 쓰고, 백서와 현형본은 ‘德’으로 쓴다. ‘德’자를 甲骨文은 ‘德’·‘德’·‘德’으로 쓰고,⁵⁴⁾ 金文은 ‘德’·‘德’·‘德’ 등으로 《鄂君啓節》은 ‘德’,⁵⁵⁾ 《詛楚文》은 ‘德’ 등으로 쓰며, 혹은 자건 ‘走’인 ‘走’으로도 쓴다.⁵⁶⁾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心’을 생략하고 쓰거나, ‘彳’를 추가하여 쓰기도 한다.

48) 《漢語古文字字形表》, 197쪽.

49) 《楚系簡帛文字編》, 506쪽.

50) 《秦漢魏晉篆隸字形表》, 334쪽.

51) 《王弼注周易》, 81쪽.

52) 《周易古經今注》, 125쪽.

53) 《帛書周易校釋》, 96쪽.

54) 《漢語古文字字形表》, 70쪽.

55) 《金文編》, ‘1714 惠’, 713쪽. ‘0256 德’, 110 쪽. ‘惠’자에서는 “孳乳爲德.(‘德’의 의미로도 쓰인다)”라 하고, ‘德’자에서는 “惠字重見.(‘惠’자에 보인다)”라 했다.

56) 《漢語古文字字形表》, 70쪽.

《說文解字》는 ‘德(德)’자에 대하여 “升也，从彳，惠聲.(‘德’은 ‘오르다’의 의미이다. ‘彳’과 ‘惠’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하고, ‘惠(惠)’에 대해서는 “外得於人，內得於己也。从直心.(‘惠’는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고 내적으로 자신에게서 얻다’의 의미이다. ‘直’과 ‘心’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라 설명하였다. 《說文解字》는 ‘惠’자가 ‘道德’의 ‘德’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字彙》는 “惠，與德同.(‘惠’은 ‘德’자와 같은 자이다)”라고, 《玉篇》은 “惠，今通用德.(‘惠’자를 지금은 ‘德’자로 쓴다)”라고, 《廣韻》은 “德，德行。惠，古文.(‘德’은 ‘德行’의 의미. 古文은 ‘惠’으로 쓴다)”라고 했다. ‘惠’과 ‘德’자는 고금자이다.

《金文常用字典》은 “金文惠從心從直. 直，除力切，中古屬澄母職韻開口三等，上古屬章母職韻，與惠字疊韻，聲母同爲舌音，故惠字之直亦可視爲聲符. 孳乳爲德，爲道德人本字.(금문의 ‘惠’자는 자건 ‘心’과 ‘直’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直’의 음은 ‘除力’切이다. 中古音은 ‘澄’母‘職’이고, ‘開口三等’韻에 속하고, 上古音은 ‘章’母‘職’韻이다. 따라서 ‘惠’자와疊韻관계이고, 聲母는 舌音으로 같다. 따라서 ‘惠’자 중의 ‘直’은 聲符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도덕을 뜻하는 ‘德’의 의미로도 쓰인다)”라 하고,⁵⁷⁾ ‘德’자에 대해서는 “德字金文或作惠，形符或作彳辵，或作言人，聲符惠或作𠄎.(‘德’자를 金文은 ‘惠’으로 쓴다. 편방을 ‘彳’이나 ‘辵’으로 또는 ‘言’이나 ‘人’을 쓰기도 한다. 聲符 ‘惠’은 혹은 ‘𠄎’으로 쓰기도 한다)”라 했다.⁵⁸⁾

그러나 孫詒讓은 편방 ‘𠄎’의 윗부분은 편방 ‘省’이라 하고, “古文惠當從心從省，蓋以省心會意，較惠心義尤允協. 小篆改易古文，失其本指者也.(古文 중의 ‘惠’자는 ‘心’과 ‘省’으로 되어 있다. 즉 심리적으로 반성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마음이라는 의미보다 적절한 표현이다. 小篆은 이미 古文의 형태를 고쳐 쓰고 있는데 이는 원래의 의미를 와전시키고 있다)”라 했다.⁵⁹⁾ 그러나 金文에서 ‘直’자는 ‘𠄎’(《恒篇》)으로, ‘省(省)’자는 ‘𠄎’·

57)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944쪽.

58)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194쪽.

‘𠄎’·‘𠄎’ 등으로 쓴다.⁶⁰⁾ 윗부분이 서로 다르다. 음성과 자형으로 보아 孫詒讓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帛書》에서 《老子》는 ‘𠄎’·‘𠄎’·‘𠄎’으로 쓰고, 《戰國縱橫家書》는 ‘𠄎’·‘𠄎’로 쓴다.⁶¹⁾ 《上博楚簡》에서 ‘𠄎’(《仲弓》)·‘𠄎’(《彭祖》)·‘𠄎’(《曹沫之陳》)으로 쓴다.

⑥ ‘𠄎(礪)’-‘𠄎(厲)(厲)’

‘𠄎(礪)’자는 편방 ‘石’과 ‘萬’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⁶²⁾ 제22간은 ‘𠄎(礪)’로 쓴다. ‘礪’·‘厲’자와 같은 자이다. 편방 ‘厲’는 ‘厂’을 생략하고 ‘萬’으로 쓴다. ‘礪’자를 ‘𠄎’로 쓰고, ‘厲’자는 ‘厲’로 쓴다.

《說文解字》는 ‘𠄎(厲)’자에 대하여 “旱石也。从厂，萬省聲。𠄎，或不省。(‘거친 숫돌’의 의미. 편방 ‘厂’과 ‘萬’省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혹은 생략하지 않고 ‘厲’로 쓰기도 한다)”라 하고, 《說文解字注》는 “按說文萬與萬篆形絕異。厲从萬省聲，則字當作厲。而隸體萬作萬，厲作厲，皆从萬，非也。後人以隸改篆，則又篆皆从萬矣。漢隸存者，作萬作厲可考也。(《說文》의 ‘萬’과 ‘萬’자의篆書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다. ‘厲’자를 ‘萬’省聲이라 했는데, 이 자는 원래 ‘厲’자이다. 隸書에서 ‘萬’자를 ‘萬’로 쓰기 때문에 ‘厲’자를 ‘厲’로 쓰고, 편방을 ‘萬’라 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 후대 사람들은 隸書를 참고하여 오히려篆書 형태를 바꿔 편방 ‘萬’으로 쓰고 있다.

59) 《古文字詁林》第八冊, 948쪽 참고.

60) 《金文編》, ‘0585 𠄎’, 242쪽.

61) 《秦漢魏晉篆隸字形表》, 120쪽. 《馬王堆簡帛文字編》, 76쪽.

62) 李零은 “厲，簡文從石萬聲，古文字的厂旁是從石旁分化，本來就是一個字，可以直接寫成厲，濮注說，此字從石從厲省，不妥。(‘厲’자는 簡文에서 편방 ‘石’과 ‘萬’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古文字에서 편방 ‘厂’은 ‘石’에서 분화된 것으로 본래는 같은 한 자이다. 따라서 이 자는 ‘厲’이다. 濮茅左는 편방 ‘石’과 ‘厲’의 일부가 생략된 자로 이루어진 자라 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라 했다. 《戰國楚竹書周易研究》, 240쪽 재인용.

漢代の 예서는 ‘蠱’자를 ‘厲’로 쓰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라 했다.

그러나 《上博楚簡》은 ‘厲’자를 ‘𧈧’(《(六)用曰》)로 쓰고, 《性情論》은 편방 ‘心’을 써서 ‘𧈧’(《性情論》)로 쓴다. 《郭店楚簡》의 《性自命出》은 이 자를 ‘𧈧’로 쓴다. 또한 ‘蠱’자에 대하여 《說文解字》는 “從虫, 萬聲.(편방 ‘虫’과 ‘萬’聲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라 했다. 따라서 ‘萬’과 ‘厲’자는 음성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段玉裁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周法高的 上古音은 ‘萬’자는 ‘mjwan’(元部), ‘厲’자는 ‘ljadh’(祭部)이다.

《集韻》은 ‘厲’자에 대하여 “《說文》: ‘厲, 旱石也.’ 或從蠱, 亦作礪·厲. 一曰巖也, 惡也, 危也, 大帶垂也.(《說文》은 “厲’자는 ‘결이 거친 슯돌’의 의미)”라 하였으며, 편방 ‘萬’ 대신 字符 ‘蠱’로 쓰기도 하고, 이 자를 또한 ‘礪’나 ‘厲’로 쓰기도 한다. 이 자는 또한 ‘엄하다’·‘심하다’·‘위험하다’·‘큰 띠가 드리우다’의 의미가 있다”라 설명하였다.

《金文編》은 ‘厲’자인 ‘𧈧’·‘𧈧’(《散伯簋》)자와 ‘邁’자인 ‘𧈧’(《先戰鼎》)·‘𧈧’(《師寰簋》) 자들을 모두 ‘萬’자 아래 수록하였다.⁶³⁾

郭沫若은 《子仲匱》의 ‘𧈧’자를 ‘礪’로 隸定하고 “‘礪’即厲之繁文, 從石與從厂同意, 從邁省聲與萬聲同.(‘礪’자는 ‘厲’자의 繁文이다. 자부 ‘石’과 ‘厂’은 같은 의미이며, ‘邁’의 省聲과 ‘萬’聲은 서로 같다)”라고 설명하였다.⁶⁴⁾ 따라서 금문에서 ‘萬’·‘厲’·‘礪’·‘𧈧’자는 같은 자이다.

‘礪’자를 《上博楚簡》의 《曹沫之陳》은 ‘石’의 일부를 생략한 자건과 음성이 ‘萬’인 ‘𧈧’(제36간)로 쓰고, 《周易》은 본 죽간과 같이 ‘𧈧(礪)’(제 18간)로 쓰기도 하고, 혹은 《曹沫之陳》의 ‘𧈧’와 비슷하나 ‘石’을 생

63) 《金文編》, ‘2354 𧈧’, 951쪽.

64)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 《漢語古文字字形表》는 ‘𧈧’(《五年衛鼎》), 《散伯鼎》의 ‘𧈧’자, 《子仲匱》의 ‘𧈧’자를 모두 ‘厲’자로 보고 있다.(368쪽 참고)

략하지 않고  (제22간)로 쓰기도 한다. 《包山楚簡》은 ‘厲’자를 ‘厲’로 쓴다.⁶⁵⁾ 모두 ‘厲’자의 이체자이다. 《帛書》의 《戰國縱橫家書》는 ‘厲’로, 《天文雜占》은 ‘厲’로 쓴다.⁶⁶⁾

王弼의 《周易注》는 “居爭訟之時，處兩剛之間，而皆近不相得，故曰‘貞厲’.(쟁송할 때, 두 강함 사이에 처하여, 가까이 있으나 서로 조화하지 못하므로, 곧으면 위태롭다고 하였다)”라 하고, 《周易正義》는 역시 “貞，正也。厲，危也。居爭訟之時，處兩剛之間，故須真正自危厲.(‘貞’은 ‘바르다’의 의미. ‘厲’은 ‘위태롭다’의 뜻. 쟁송을 할 때, 두 강자 사이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직하나 스스로는 위태롭다고 하였다)”라 했다. 鄧球柏은 ‘厲占’으로 해석하였다.⁶⁷⁾

⑦ ‘復’-‘復’

《上博楚簡》은 ‘復’자로 쓰고 《帛書》는 ‘復’으로 쓴다. ‘復’자는 편방 ‘辵’과 ‘夏’聲으로 이루어진 자이고, ‘復’은 편방 ‘彳’과 ‘夏’聲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금문에서 ‘復’는 자건 ‘彳’ 혹은 ‘辵’으로 써서 ‘復’·‘復’으로 쓰거나 ‘復’ (夏)‘자로 쓰고,⁶⁸⁾ 갑골문은 ‘復’으로, 《石鼓文》은 ‘復’으로, 《侯馬盟書》는 ‘復’·‘復’으로, 《詛楚文》은 ‘復’으로 쓴다.⁶⁹⁾ 《帛書》에서 ‘復’자는 ‘復’·‘復’·‘復’·‘復’·‘復’·‘復’ 등으로 쓴다.⁷⁰⁾ 초죽서 중 《郭店楚簡》은 ‘復’·‘復’으로 쓰고, 《上博楚簡》 중 《性情論》은 ‘復’으로 《周易

65) 《楚系簡帛文字編》，823쪽 참고.

66) 《秦漢魏晉篆隸字形表》，663쪽 참고.

67) 《帛書周易校釋》，96쪽.

68) 《金文編》，‘0266 復’，111쪽.

69) 《漢語古文字字形表》，71쪽.

70) 《馬王堆簡帛文字編》，75쪽.

》제32간과 50간은 각각 𠄎 · 𠄎으로 쓴다.

《說卦傳》은 “復, 反也.(‘復’은 ‘돌아오다’의 의미)”라 했다.

⑧ 𠄎(愈) - 𠄎(愈)

《上博楚簡》은 ‘愈’로 쓰고, 《帛書》는 ‘愈’로 쓰고, 현행본은 ‘渝’로 쓴다. 《郭店楚簡》의 《老子甲》은 𠄎로 《窮達以時》는 𠄎로 쓴다.

금문에서 ‘愈’자는 편방 ‘心’을 생략하고 𠄎로 쓰기도 한다.⁷¹⁾

王弼의 《周易注》는 “處上訟下, 可以改變者也, 故其咎不大.(위에서 아래를 송사하지만, 개변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 허물이 크지 않다)”라 하여 ‘渝’를 ‘變’의 의미로 해석하였다.⁷²⁾ 그러나 高亨은 “敗也.(‘실패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⁷³⁾ 《爾雅·釋言》은 “渝, 變也.(‘渝’는 ‘변하다(變)’의 의미이다)”라고 하고, 《象》은 “復即命渝, 安貞, 不失也.(‘소송에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 바로 명령 바꾸어 다르니 인내하고 편안히 하니’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다.

《鄭風·羔裘》에는 “彼其之子, 舍命不渝.(우리 님은 명을 받으며 변함이 없네)”라는 구절에 대하여 《毛傳》은 “渝, 變也.(‘渝’은 ‘변하다’의 뜻)”이라 하고, 鄭玄은 “是子處命不變, 謂守死善道, 見危授命之等.(그대가 명령을 받고 변치 않네라는 것은 죽어도 올바른 길을 택하여 위험에 처해도 명령을 기다린다는 뜻이다)”라 했다.

《帛書》 중 《老子》는 𠄎 · 𠄎로 쓴다.⁷⁴⁾

⑧ 𠄎(帶) - 𠄎(帶)

‘帶’자는 편방 ‘糸’와 ‘帶’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며, ‘帶’자와 같은 자이다.

71) 《金文編》, ‘1783 𠄎’ 719쪽.

72) 《王弼周易注》, 82쪽 참고.

73) 《周易古經今注》, 126쪽.

74) 《秦漢魏晉篆隸字形表》, 612쪽 참고.

《帛書》와 현행본은 ‘帶’로 쓴다.

楚竹書에서 ‘帶’자는 ‘帶’ 이외에도 ‘帶’·‘帶’ 등으로 쓴다. 《曾侯乙墓》는 ‘帶’로, 《天策》은 ‘帶’로, 《望山楚簡》은 ‘帶’로, 《容成氏》는 ‘帶’로 쓴다.⁷⁵⁾

商承祚는 <江陵望山二號楚墓竹簡遺策考釋>에서 “革帶, 緝帶, 亦見信陽長臺關竹簡. 帶, 卽帶, 革帶乃以皮革製成, 用以繫鞞佩. 《禮記·玉藻》: ‘鞞, 下廣二尺, 上廣一尺, 長三尺, 其頸五寸, 肩·革帶博二寸!’ 注: ‘頸, 中央. 肩兩角, 皆上接革帶以繫之, 肩與革帶廣同. 凡佩, 繫於革帶!’ 緝帶, 用緝絲法織成之帶.(‘革帶’는 ‘緝帶’로 이 낱말은 《信陽長臺關竹簡》에도 보인다. ‘帶’자는 즉 ‘帶’와 같은 자이며, ‘革帶’는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폐슬을 묶을 때 사용한다. 《禮記·玉藻》에 ‘鞞의 아래 넓이는 2자이고 위 쪽 넓이는 1자이고, 길이는 약 3자이다. 그 중앙의 넓이는 5치이고, 상부의 양 어깨와 革帶폭은 모두 2치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鄭玄은 ‘頸은 중앙이고, 肩은 양 어깨를 말하며, 혁대에 잡아 매달며, 肩과 革帶는 그 넓이가 같다. 노리개(佩)는 일반적으로 革帶에 매단다’라고 설명하고, ‘緝帶’는 실을 짜서 만든 혁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였다.⁷⁶⁾ 즉 ‘鞞帶’란 특별히 총애하여 하사하는 의복으로, 윗사람은 예로써 하사하고 아랫사람은 은덕으로써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般帶’는 ‘큰 혁대’이다. 《方言》과 《廣雅·釋詁》는 모두 “般, 大也. (‘般’은 ‘크다’의 의미)”라 했다.

2. 판본이 다른 경우

異體字 중에서 통가자도 아니고 同意字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판본이 서로 달라 다른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75) 《楚系簡帛文字編》, 721쪽.

76) 《戰國楚竹簡彙編》, 97-98쪽.

① ‘𠄎(中)’-‘克(克)’

현행본과 《上博楚簡》은 ‘𠄎(中)’으로 쓰고, 《帛書》는 ‘克(克)’으로 쓴다. 張立文《帛書周易注釋》과 《戰國楚竹書周易研究》는 《帛書》의 ‘克’자는 ‘中’자를 잘못 쓴 것이라 했다.⁷⁷⁾ 《帛書》 중 《戰國縱橫家》 등은 ‘𠄎’·‘𠄎’으로 쓴다. 《帛書》의 ‘中’자는 모두 같은 형태이다.⁷⁸⁾ ‘中’자는 매우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 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上博楚簡》 정리본은 ‘中’자를 ‘冬(終)’자와 대응적인 개념으로 ‘中間’의 의미라 하였다. 초죽서에서 ‘中’자는 ‘𠄎’·‘𠄎’·‘𠄎’·‘𠄎’·‘𠄎’·‘𠄎’ 등의 형태로 쓴다.⁷⁹⁾

‘克’자를 아래 “不克訟”에서는 ‘𠄎’으로 쓰고, “至十年不克正(征)”(054)·“大師克相遇”(007)·“弗克攻”(007) 중의 ‘克’자를 각각 ‘𠄎’·‘𠄎’·‘𠄎’으로 쓴다.⁸⁰⁾ ‘𠄎’은 ‘𠄎’의 형태와 같다. 《說文解字》는 “肩也. 象屋下刻木之形. 𠄎古文克. 𠄎亦古文克.(극복하다의 의미. 지붕 아래 깎아 만든 기둥나무의 형상. ‘克’의 고문은 ‘𠄎(𠄎)’·‘𠄎(𠄎)’으로 쓴다”라 했다. 갑골문은 ‘𠄎’·‘𠄎’·‘𠄎’으로 쓰고, 금문은 ‘𠄎’·‘𠄎’·‘𠄎’으로, 《詛楚文》은 ‘𠄎’으로 쓴다.⁸¹⁾ 羅振玉은 《增訂殷虛書契考釋》에서 “象人戴胄形.(사람이 투구를 쓰고 있는 형상)”이라 했다.

鄧球柏은 ‘克’자를 ‘能’·‘거북점, 시초점 중의 하나’⁸²⁾ 혹은 ‘克訟(송사

77) 張立文, 34쪽. 陳仁仁 239쪽.

78) 《馬王堆簡帛文字編》, 13쪽.

79) 《楚系簡帛文字編》, 57쪽 참고.

80) 《馬王堆簡帛文字編》, 287쪽 참고.

81) 《漢語大字典》, 269쪽 참고.

82) 《書經·洪範》: “曰雨曰霽曰蒙曰驛曰克曰貞曰悔”.

를 이기다)의 생략의 뜻이라 하고, “有復, 沍寧, 克吉, 冬兕” 구절을 “爲水利問題爭訟, 因此而問蓍, 筮人報以‘克吉’·‘冬兕’之占.(水利 問題로 다툼이 발생하여 점을 치자, 점치는 사람이 ‘克吉’과 ‘冬兕’의 점괘가 나왔다고 보고 하였다)”라 해석하였다. ‘克吉’에 대해서는 鄧球柏은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석 내용으로 보아 ‘克吉’은 ‘能吉’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³⁾

《爾雅·釋言》은 “克, 能也.(‘克’은 ‘能’의 뜻이다)”라 하고, 《尚書·堯典》은 “克明後德, 以親九族.(능히 덕을 밝히시어 온 친족들을 화목하게 하였다)”라 했다. 금문 중 “乖白(伯), 朕不(丕)顯且(祖)玟(文)斌(武), 雁(膺)受大命, 乃且(祖)克秦(弼)先王.(乖伯아! 나의 영명하신 文王과 武王은 하늘의 대명을 받들었고, 너의 祖父는 자신의 나라로부터 주나라에 와서 기꺼이 先王을 보필하였고, 천명에 부합되도록 실행하였다)”(《乖伯簋》)·“佳(唯)廡(吾)老聃(闕)是克行之, 於(鳴)虜(呼)攸擘(哉)!(오직 나의 대신인 闕만이 능히 이를 調律할 수 있고, 유유자적하게 처리할 수 있으리오!)”(《中山王響鼎》) 구절 중 ‘克’자 역시 부사인 ‘能’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克’자를 ‘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참고할 만하다.

한편 현행본과 백서의 아래 “不克訟” 중 ‘克’자를 《上博楚簡》 역시 ‘𠄎’(克)자로 쓰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는 현행본과 백서가 모두 ‘克’자로 쓰나, ‘中’자로 쓰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克’과는 다른 ‘中’의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혹은 《帛書》의 ‘克’자는 형태가 비슷하여 ‘中’자를 잘못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𠄎’(出)–‘𠄎’(攸)(永)’

현행본과 《帛書》의 “不永所事” 구절을 《上博楚簡》은 “不出遯事”로 쓴다. 정리본은 “遯, 今本作永(‘遯’자를 현행본은 ‘永’자로 쓴다)”라 했는데,⁸⁴⁾ 현행본과 백서의 ‘永’자를 《上博楚簡》은 ‘出’으로 쓰고, ‘所’자를

83) 《帛書周易校釋》, 94쪽.

‘遯’로 쓰며, 《帛書》의 ‘所’자는 ‘忤’자를 잘못 쓴 것이라 하였다.⁸⁵⁾ 그러나 《上博楚簡》 ‘蒙卦’의 ‘遯’ 역시 《백서》는 ‘所’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 썼을 가능성이 적다.

《帛書》《周易》 중 “永貞吉”(017行)의 ‘永’자를 ‘𠄎’으로 쓰고, “元永貞”의 ‘永’자는 ‘𠄎’으로 쓴다. ‘永’자를 王弼이나 孔穎達은 ‘永’을 ‘오래’라는 의미인 ‘長’으로 해석하였다.

陳仁仁은 “不出遯事”는 “不廢治事.(일 처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다)”고, 廖名春은 “不生忤逆之事.(거역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다)”의 뜻이라 했다.⁸⁶⁾ 陳仁仁의 해석은 《玉篇》“出, 去也, 遠也.(‘出’는 ‘나가다’·‘멀어지다’의 의미)”에 가깝고, 廖名春은 《正字通》의 “出, 生也.(‘出’은 ‘발생하다’의 뜻)”에 가깝다. 《周易》의 《說卦傳》은 “萬物出乎震.(萬物은 震動에서 나온다)”라 했다.

③ ‘𠄎(遯)’-‘所(𠄎)’

‘出’과 ‘永’자와 마찬가지로 《上博楚簡》이 ‘遯’로 쓰고, 《帛書》가 ‘所’자로 쓰는 것은 판본이 달라 문장 전체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上博楚簡》 ‘蒙卦’의 ‘遯’자를 역시 ‘所’자로 쓴다.

정리본은 ‘遯’자는 ‘御’자와 같은 자로 ‘다스리다’·‘통치하다’의 뜻이고, “御事”는 “治事(일을 처리하다)”의 의미라 했다.⁸⁷⁾ 《國語·周語》는 “百官御事.(모든 관리가 자신의 일을 처리하다)”라 했다. ‘遯’자를 현행본은 ‘永’자로 쓴다. “少又言”은 “少有言(좀 말썬이 있다)”의 의미이다. 현행본 《象》은 “不永所事, 訟不可長也. 雖‘小有言’其辯, 明也.(‘不永所事(하는 일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소송은 오래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4) 《楚竹書周易研究》, 79쪽.

85) 《戰國楚竹書周易研究》, 239쪽.

86) 《戰國楚竹書周易研究》, 239쪽.

87) 《楚竹書周易研究》, 79쪽.

‘小有言(좁 말썽이 있다)’라는 것은 곧 송사가 명백하게 밝혀진다는 뜻이다)”로 쓴다.

‘不出遯事’ 중의 ‘出’자를 정리본은 ‘黜(물리칠 출, chù)’으로 해석하고, “不黜御事”를 ‘일 처리하는 것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 하였다. 백서본과 현행본은 “不永所事”로 쓴다. 王弼은 “處訟之始, 訟不可終. 故不永所事, 然後乃吉.(송사할 것이 생겼으나, 그 송사를 오래 끌어 끝까지 할 게 못되므로, 송사를 길게 하지 않아야 길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 처리를 꺼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곧 송사를 오래 끌지 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不永所事, 小有言. 終吉.”에 대하여 《象》은 “不永所事, 訟不可長也. 雖小有言, 其辯明也.(송사가 길지 않으면’이라 한 것은 송사는 오래할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니, 설사 조금 말이 있으나, 그 변별함은 밝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라 했다. 모두 ‘所’자를 ‘이른바 -것’의 의미인 ‘名詞性結句助詞’의 용법으로 해석하였다. 《小雅·都人士》“行歸于周, 萬民所望.(주나라로 귀순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 원하는 바네)” 중의 ‘所’자의 용법과 같다.

《帛書》는 ‘所’자를 ‘𠄎’(《遣策一》)·‘𠄎’(《五星占》)·‘𠄎’(戰國縱橫家書》) 등으로 쓴다.⁸⁸⁾ “𠄎公之寡(顧)命員(云): 毋以少(小)悔(謀)敗大
 【22】 愖(作), 毋以卑(嬖)御息(塞)妝(莊)句(后), 毋以卑(嬖)土息(塞)大夫·卿事(士).(
 《祭公之顧命》은 “小臣의 계략을 가지고 대신의 계획을 망치지 말며, 嬖御(폐어, 비친한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의 사람으로써 莊后(장후)를 버리지 말고, 폐사으로써 장사·대부·경사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중의 𠄎(遯)’자를 《郭店楚簡》은 ‘𠄎(遯)’로 쓰고 현행본 《禮記》는 ‘御’로 쓴다. 《上博楚簡·周易》第1簡의 “利遯寇”의 𠄎(遯)’자를 현행본은 ‘禦’로 쓰고, 《帛書》는 ‘所’로 쓴다. ‘遯’자는 ‘御’자와 같은 자이고, ‘禦’자와 통용된다. 갑골문은 ‘𠄎’·‘𠄎’·‘𠄎’·‘𠄎’로 쓰고,

88) 《馬王堆簡帛文字編》, 572쪽 참고.

金文은 ‘𠂔’(《古伯尊》)·‘𠂔’(《牧師父簋》)·‘𠂔’(《孟鼎》)·‘𠂔’(《頌鼎》)로 쓰며,⁸⁹⁾ 《包山楚簡》은 ‘𠂔’·‘𠂔’로 《江陵天星觀》은 ‘𠂔’·‘𠂔’로 《曾侯乙墓》는 ‘𠂔’·‘𠂔’로 쓰며,⁹⁰⁾ 《睡虎地秦簡》은 ‘𠂔’·‘𠂔’로 쓴다. ‘御’자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가는 모습이며,⁹¹⁾ ‘御’·‘御’·‘馭’는 같은 자이며 ‘禦’자와 통한다.

《說文解字》는 “御, 使馬也, 從彳從卸. 馭古文御, 從又從馬.(‘御’는 ‘車馬를 몰다’의 의미이다. ‘彳’와 ‘卸’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 ‘馭’는 ‘御’의 고문자로 ‘又’와 ‘馬’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라고, 徐鍇는 “解車馬也, 或彳或卸.(‘卸’는 ‘車馬를 몰다’의 의미이다. 혹은 ‘彳’과 ‘卸’를 써서 ‘御’로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詩經·齊風·猗嗟》의 “以禦亂兮(세상의 어지러움 방지하네)”라는 구절을 鄭玄은 《儀禮·大射儀》를 주석하면서 “以御亂兮”로 쓴다. 《左傳·莊公二十四年》의 “御孫”을 《漢書古書人名表》는 “禦孫”으로 쓰고, 《周禮·掌蜃》의 “以蜃御淫”이라는 구절에 대하여 《釋文》은 “本亦作禦(‘御’자는 본래 ‘禦’자로 쓰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御’자는 ‘御’와 같은 자이고, ‘禦’자와 통용된다. 《象》은 “利用禦寇, 上下順也.(과도한 폭력을 억제한다는 것은 상하가 순종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上博楚簡》의 ‘御’자를 《帛書》는 모두 ‘所’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鄧球柏과 張立文은 모두 ‘蒙卦’의 ‘所’를 動詞 ‘處’로 해석하였다.⁹²⁾ 그러나 본 ‘訟卦’에서는 代詞 ‘其’·‘斯’·‘此’로 해석하였다.⁹³⁾

89) 《漢語古文字字形表》, 74쪽.

90) 《楚系簡帛文字編》, 184쪽.

91) 《金文常用字典》, 205쪽.

92) 《帛書周易校釋》, 139쪽; 《帛書周易注釋》, 97쪽.

93) 《帛書周易校釋》, 95쪽 참고.

④ ‘四(四)’-‘百(百)’

현행본과 《帛書》의 “其邑人三百戶” 중의 ‘百’자를 《上博楚簡》은 ‘四’로 쓴다. 濮茅左의 整理本은 《周禮·地官·小司徒》“九夫爲井，四井爲邑，四邑爲丘”·《國語·齊語》“三十家爲邑(30 가구를 ‘邑’이라 한다)”와 《左傳·莊公二十八年》“凡邑，有宗廟先君之主曰都，無曰邑。(무릇 고을에는 제후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종묘가 있는가. 선대 군주의 신주를 모신 곳은 都라 하고 없는 곳은 邑이라 한다)”의 문장을 참고하여 ‘四’자와 ‘百’자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帛書와 현행본이 잘 못 쓴 것이라고 하였다.⁹⁴⁾ 그러나 張立文은 “四百形近而誤.(‘四’자는 ‘百’자와 형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쓴 것이다”라 하고,⁹⁵⁾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周易釋譯》은 ‘3과 4를 곱한 숫자인 12’로 보기도 한다.⁹⁶⁾ ‘邑’을 형성하기엔 세넷 가구는 너무 적은 숫자이고, 10 호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百’자를 《郭店楚簡》 중 《老子》는 ‘百’·‘百’·‘百’으로, 《緇衣》는 ‘百’·‘百’·‘百’으로 쓴다. 이는 판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를 쓴 것으로 보인다.

III. 結 論

楚竹書 《周易》은 현재까지 발견된 《周易》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楚竹書 《周易》은 고대 先秦시대의 易學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楚竹書 《周易》 중의 일부는 비록 산실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을 통하여 先秦 시기 《周易》의 원래의 모

94) 《楚竹書周易研究》, 79쪽.

95) 《帛書周易注釋》, 36쪽.

96) 季旭昇 主編, 15쪽 참고.

습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 2천년 전 부터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는 각종 符號는 선진시기의 易學 연구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上博楚簡》과 《帛書》의 ‘訟’卦 문자 비교를 통하여 ‘通假字’로 쓰는 경우와 ‘판본’이 서로 달라 각기 다른 문자를 사용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의 이체자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가자’로 인하여 이체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懷-漚’·‘應-寧’·‘肤-逋’·‘上-尙’·‘緇-般’·‘襄-撫’과 ‘兇-凶’·‘遑-歸’·‘禧-省’·‘食-飲’·‘惠-德’·‘厲-厲’·‘復-復’·‘愈-愈’·‘縶-帶’ 등이 있고, 판본이 달라서 이체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中-克’·‘出-永’·‘迎-所’·‘四-百’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또한 本字나 혹은 通假字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하여 卦爻辭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戰國시기 문자에서 漢代시기의 문자의 연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周易》의 원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周易》이 변화해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 參考文獻 >

- 馬承源,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八)》(上海古籍出版社), 2001~2011.
- 何琳儀·程燕·房振三, <滬簡周易選釋(修訂)>, 《周易研究》1, 2006.
- 廖名春, <楚簡《周易》校釋記(一)>, 《周易研究》3, 2004.
- 李零, <讀上博楚簡《周易》>, 《中國歷史文物》4, 2006.
- 季旭昇, <《上博三·周易》簡六‘朝三褫之’說>, 簡帛研究인터넷사이트, 2004年4月18日
- 楊澤生, <竹書《周易》中的兩個異文>, 簡帛研究인터넷사이트, 2004.

- 濮茅左, 《楚竹書〈周易〉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6.
- 陳惠玲,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萬卷樓), 2005.
- 陳仁仁, 《戰國楚竹書〈周易〉研究》(武漢大學出版社), 2010.
- 容庚, 《金文編》(中華書局), 1985年.
-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文物出版社), 1998.
- 徐中舒, 《漢語古文字字形表》(四川辭書出版社), 1981.
- 高明 編著, 《古文字類編》(臺灣大通書局印行), 1986.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甲骨文編》(中華書局), 1965.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四川辭書出版社), 1993.
-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上海教育出版社), 1999.
- 清華大學思想文化研究所編, 《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上海書店出版社), 2002.
- _____, 《上博館藏戰國楚竹書研究續編》(上海書店出版社), 2004.
- 陳初生, 《金文常用字典》(陝西人文出版社), 1986.
- 湯可敬, 《說文解字今釋》(岳麓書社), 2001.
- 郭沫若, 《郭沫若全集(9)》(科學出版社), 2002.
- 李零, 《上博楚簡三篇校讀記》(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_____, <上博楚簡校讀記(之一)>, 《中華文史論叢》4(上海古籍出版社), 2002.
- _____, 《郭店楚簡校讀記》(北京大學出版社), 2002.
- 劉釗, 《郭店楚簡校釋》(福建人民出版社), 2003.
- 季旭昇,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讀本》(臺灣萬卷樓), 2004.
-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讀本》(臺灣萬卷樓), 2003.
-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臺灣萬卷樓), 2005.
-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讀本》(臺灣萬卷樓), 2007.
- 張書岩, 《異體字研究》(商務印書館), 2004.
-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文物出版社), 1998.
- 商承祚, 《戰國楚竹書匯編》(齊魯書社), 1995.

- 饒宗頤, 《楚帛書研究》(中華書局), 1985.
- 李守奎, 《楚文字編》(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1-5)文字編》(作家出版社), 2007
- 張守中, 《郭店楚簡文字篇》(文物出版社), 2000.
- _____, 《睡虎地秦簡文字篇》(文物出版社), 1994.
- _____, 《包山楚簡文字篇》(文物出版社), 1996.
- 陸錫興, 《漢代簡牘草字編》(上海書畫出版社), 1989.
- 陳漢平, 《金文編訂補》(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 滕壬生, 《楚系簡帛文字篇》(湖北教育出版社), 1995.
- 駢宇騫, 《銀雀山漢簡文字篇》(文物出版社), 2001.
- 陳松長, 《馬王堆簡帛文字篇》(文物出版社), 2001.
- 湯餘惠, 《戰國文字編》(福建人民出版社), 2001.
- 陳建貢, 《簡牘帛書字典》(上海書畫出版社), 1991.
- 李正光, 《楚漢簡帛書典》(湖南美術出版社), 1998.
- 朱淵清, 《上海博物館藏楚竹書研究》(上海書店出版社), 2002.
- _____, 《上海博物館藏楚竹書研究續編》(上海書店出版社), 2004.
- 崔南圭, 《郭店楚墓竹簡-임서와 고석》(신성출판사), 2005.
- _____, 《중국고대금문의 이해(Ⅰ)(Ⅱ)》(신아사), 2009~2010.
- 漢語大字典字形組, 《秦漢魏晉篆隸字形表》(四川辭書出版社), 1985.
- 鄧球柏, 《帛書周易校釋》(湖南人民出版社), 2002.
- 張立文, 《帛書周易注釋》(中注古籍出版社), 2008.
-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馬王堆漢墓文物》(湖南出版社), 1992.
- 清 阮元校刻本, 《十三經注疏》(中華書局), 1980.
-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周易正義》(北京大學出版社), 1999.
- 韓自強, 《阜陽漢簡周易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4年.
- 高亨, 《周易古經今注》(中華書局), 1984.
- _____, 《周易大傳今注》(齊魯書社), 1979.
- 高亨, 김상섭 禹김, 《고형의 주역》(예문서원), 1995.

김인환 옮김, 《주역》(나남출판), 1997.

임채우 옮김, 《周易王弼注》(도서출판 길), 1997.

李正光, 《馬王堆漢墓帛書竹簡》(湖南美術出版社), 1988.

<中文提要>

楚竹书《周易》的出现,为了解、研究先秦时期的易学提供了可靠的文物数据,在中国易学史上有着重要的意义。在我国易学史上将产生深远意义。

本文將《上博楚簡·周易》與《馬王堆帛書·周易》中‘蒙’‘需’‘訟’卦的文字書體比較分析。文字不同者有如通假字,也有版本不同而異字,還有書體不同者,但因篇幅的關係在本文暫時只談通假字。

楚竹书和漢帛書的比較和整理还具有文字学意义。进一步提示了战国和漢代文字的通用、假借、书写、形体等规律,有益于文字发展史的研究。根据传本以及重本的比勘,可以了解到在战国和漢代文字通用、约定俗成的状况,以及在文字流变过程中文字的通假,这对解读战国以及漢代文献有直接的帮助。同时,也为研究六国文字、楚国方言以及漢代言語提供了可靠文献。战国楚竹书和漢代帛書的发现和整理,还提供了与传本相異、颇具比较价值的文献材料。

주제어 : 上博楚簡, 郭店楚簡, 楚竹書, 周易, 帛書

